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 농촌전도단 파송식

Ⅲ부 예배 여름성경학교 · 축호전도 · 의료활동 펴

서울교회 농촌전도단이 오늘 Ⅲ부 예배시 파송식을 갖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돌입한다.

이번에 파송되는 전도단은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3박 4일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읍정리에서 전도활동을 편다.

전도단의 주요활동은 축호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진행, 의료봉사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도단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도 열 예정이다.

농촌전도단은 이미 농촌봉사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전도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또 기도회로 모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새로이 하고 전도지를 마련하고 전도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도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쳤다.

특히 농촌전도에 참가하는 전도단원들은 책정된 교회예산외에 각자 헌금을 하여 자비

량 전도자의 본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전도단원은 단장 김태기장로 등 모두 46명. 기획, 전도, 교육, 지역봉사, 의료봉사, 취사봉사, 찬양, 재정 등 8개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펴게 된다.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기장로는 "농촌전도단원은 46명뿐이지만 사실상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모든 성도가 기도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지역주민의 생필품 등을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 울정교회=김의석전도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세례교인 18명, 청장년부 20명, 중고등부 8명, 아동부 15명이 전교인이다. 제직은 서리집사 9명(남4명, 여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전 서노회 소속이다. 읍정리는 78가구 3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반경 2km 내에 태실교회, 수촌교회, 의당교회 등 3개의 교회가 있다.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제 51주년 광복절 기념연합예배를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로 드린다.

오늘 기념예배는 각 교단 및 기관단체 대표들과 한국교회지도자 약 1천명이 참석하게 된다. 예배설교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최훈 목사가 "기독교의 자유관"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는 임봉천 목사(한기총 공동회장)와 김상복 목사(한기총 남북교회협력위원장)가 각각 맡았고 헌금시간도 있다.

예배 후엔 민경배교수(연세대)가 "광복이 주는 오늘의 의미"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며 한국교회 연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수) 학습·세례식

21일(수) I, II부 예배 시에 8월 학습·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9일(월) 오후 7시에 3층 찬양대실에서,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소망부 특강

오늘과 다음 주일 잇따라 II부예배 후 소망부 주최로 한국의 현실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갖는다. 오늘은 "고난의 역사와 한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김상철집사(피택장로)가, 18일엔 "북한의 실상과 한국의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이번생집사가 특강을 맡는다.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19일부터 전국대회·총회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는 19일(월) ~ 21일(수)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남선교회 창립 제72주년 전국대회 및 제 55회 총회를 개최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대회에서 주제 강연은 이종윤 목사가 한다.

회비는 숙식일제를 포함 7만원이며 참가접수는 14일까지 사무국에서 받는다.

청년부수련회 14일부터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2박 3일간 강화도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원호 목사와 이만열 전도사이다.

연천 수해현장 방문 쌀, 옷 등 물품 전달

구제위원회는 6일(화) 수해를 당한 연천지역을 방문, 준비한 구호품을 전달하고 조속한 회복을 기도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대전리제일교회와 진상교회를 찾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이들 교회를 통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품이 간접적으로 전해지도록 했다.

준비해 간 구호품은 대대상 1점, 피아노 1대, 신양서적 50권, 쌀 100포, 침구 13상자, 의류 61상자, 찬통 90개, 식기 80개, 기타 생활용품 8상자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종윤 목사는 재난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자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수해현장은 도로와 가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여서 수재를 당한 그곳의 성도들은 우리의 작은 정성도 매우 고마와했다.

여전도회 연합회장인 이연숙 집사는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짧은 시간 내에 협력해 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논과 밭, 집과 가축 등 생계의 모든 근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비록 새 옷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밝혔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지혜

(창세기 44장 1 ~ 17절)

이종운 목사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IQ(지능지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지수는 개인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EQ(감성지수)를 말합니다. 그런가하면 WQ(의지지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지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계락을 짝니다. 형들의 IQ, EQ, WQ를 테스트하여 형들이 얼마나 온전한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 요셉은 형들을 도덕적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도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누명을 씌워 형들의 인격의 정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환경 때문에 머리를 숙였으나 감정이 허락지 않아 겸손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지난 날의 은혜를 모두 잊고 자신들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셉의 시험에 낙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명을 쓴 형들은 자신의 결백과 정직함을 주장하면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정지수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합격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들에게는 냉철한 지성 작용이 발휘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발각되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답변한 것입니다(9-10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대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능지수를 시험하는 자리에서도 통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울러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면 종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살인을 하고 도망치든가, 베냐민을 미워하고 몰아세우든가 했을 형들이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허물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의 인격을 성숙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 요셉은 형들이 겸손히 복종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오해, 불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려하기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옷을 찢고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통하게 여긴 것은 베냐민이 받을 고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행한 죄가 오늘 하나님께 적발되었다고 여기고 운 것입니다.

15절에서 요셉이 점을 쳤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애굽사람처럼 행동하여 자기를 감추려 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증거는 겸손한 순복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내세울 이론도 변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복종만이 요구됩니다. 그럴 때 자비가 임합니다.

3. 요셉은 베냐민을 혈육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의 형제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억류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떠나게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고통과 오해와 멸시를 잘 견뎌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요셉 자신도 비난과 오해와 멸시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동생도 자기와 같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끔 고난의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요셉은 또한 형들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열

마나 사랑하는지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형들은 베냐민을 사랑했고 아버지도 사랑했습니다(31절). 요셉은 형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 자기 눈 앞에 있는 형들의 모습에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미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희망의 무지개”

홍수로 인해 인간이 재앙을 맞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노아시대의 홍수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물로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였으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가르치실 때 노아 홍수를 언급한 것만 보아도 당대의 홍수가 얼마나 무섭고 우주적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재난 속에서도 유독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요 대인관계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므로 마침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얻은 자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미래 약속의 사인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오늘의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자.

충남에서 온 편지

다시 한 번 와 주십시오

조영환 (장로, 용정교회)

작년 이맘 때 저희마을에 오셨던 농촌전도단 여러분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전도단이 다녀간 후 저희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해 주신 전도단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감동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하였으며 마음문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전도받은 사람 중에 세 가정이 꾸준히 출석하다가 한 가정은 어른이 돌아가신 후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응은 좋았지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사람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는 지속적인 교회 출석이나 봉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정교회는 작년에 시무하시던 문 전도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임하셨고 7월 14일에 이한웅 전도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보통의 농촌교회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인원이 적다보니 교회의 모든 조직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하려해도 구성원이 없고 남전도회는 조직할 인원이 없으며 여전도회에는 노인들 몇몇이 있을 뿐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는 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자꾸만 농촌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도 이제는 살 만합니다. 신앙좋은 아가씨들이 우리 고을로 시집온다면 교회도 마을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생기를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전도단 여러분! 꼭 한 번 다시 와 주십시오. 작년에는 경향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전도단이 다시 한 번 오신다면 여러분의 활동이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뵙기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서울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6. 8. 7.

주일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몇분이 모여 앉아 지키는 교회. 예배시간이 지나면 주일에도 금방 적막감이 도는 교회. 목회자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나라에는 현재 653개의 성교회를 포함, 2만여개의 농어촌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촌교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촌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젊은

이들이 떠나고 경제력도 약화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은 커녕 교회당의 유지에도 힘이 든다. 더욱이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교회는 급성장하는 도시교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농촌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들이 힘겹게 느끼도록 한다. 목회자들의 자녀교육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지역은 결코 포기하거나 경시되어야 할 지역은 아니다. 오히려 농어촌교회뿐 아니라 도시교회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교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었던 몇가지 방안을 정리해 본다.

먼저 농촌교회가 자생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교회가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의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 등을 내세워 자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등 농민과 함께하며 현지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농촌교회 - 도

시교회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 두 농촌교회에 도 선교사를 파

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개교회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 도시교회와 총회 차원에서 농촌교회와의 선교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교회가 농촌의 교회를 맡아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교회의 유지보수·목회자의 교육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교회의 1백교회운동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교회를 생각하며...

■ 광야의 소리

어느 외국 가수가 온다는데?

김광신 (장로, 청년부 부장)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은 벌써 세계화로 배부르고 있고 포식 직전에 있는 상태이다. 그 세계화의 업적을 과시할 또하나의 이벤트가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기자회견을 청한 주무책임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그분'을 모셔오는 것에 대한 국민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인사항이 아무래도 쟁쟁는지 많은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변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외압이 있지도 않았고 OECD가입 때문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의 하이틴들은 체육관으로 구름떼처럼 달려갈 것이다. 공연

머칠 전부터 마음은 들뜬 것이고 체육관 앞 자리를 차지하여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설 것이다.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슨 표값이 그리도 비싼지 어른들이 입장하는 공연도 아닌데 유명한 오페라 공연 입장권보다도 더 비쌀 것이라는 소문이다. 그런 거액을 어떻게 장만하라고. 결국은 불법적인 자금동원능력을 시험해 보아야 할 기회로 삼으려는가.

보다 한심스러운 것은 그의 노래가 하이틴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용기로 이 일을 저질렀는가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입장권을 사지도 않을데도 결국 청소년들에게만 날마다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유흥할 것 아닌가.

욕을 먹어야 한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주관회사와 도장을 진하게 찍어준 이나라 정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어찌자고 자랑스럽게 자라고 있는 하이틴 가슴을 흔들어 놓아서 잔잔한 호

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난 말이다. 그것이 불량식품을 팔아먹는 사람보다 죄가 가볍다고 할 것인가. 육신으로 들어가는 불량식품은 일시적이고 회복이 빠를 수도 있지만 정신이 망들고 영이 흐려져서 헤매게 될 때 그 상처는 얼마나 깊을 것이며 그 회복은 어느정도 가능할까 생각이나 했는가 말이다. 독약을 먹고 사탄의 영을 주입시키고도 살아날 길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승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완패가 정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싸움은 우리가 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건 것이고 우리는 약자 편에 선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의 것이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싸움에 응하기로 하고 창과 방패되신 자들을 취하기 위하여 개울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금통을 이제 비웁시다.”

9월 첫 주일 건축헌금



새 예배당 건축헌금에 동참하기 위해 배포된 저금통이 9월 초에 비워진다. 교회학교 학생의 경우는 부서별로 모여서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금통을 채운

성도들은 각자 드리면 된다.

지난 6월에 보급된 이 저금통은 분리 후 재조립이 가능해 한번 비운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2차 건축헌금을 다시 저금할 수도 있다.

교회건축 특별 금요기도회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을 기도로 세워가기 위한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권사회에는 지난 수요일(7일)

철야기도회로 모여 새 예배당을 짓는 일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간구하였다.

기도의 불씨를 모으기 위해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모인다.

피택장으로 23일(금) 산상기도회

피택장로들은 23일(금) 산상기도회를 갖는다.

지난 6월 2일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4명의 피택장로들은 11월에 있을 취임식 및 장립식을 앞두고 매주 1회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피택장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택장로들이 당회원을 초청하여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피택장로들이 영성훈련은 물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철야기도를 하면서 당회원들과 영적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된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현황

선교회, 다락방, 가정 혹은 개인과 결연한 농어촌교회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100교회 운동.

우리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하고 이 운동을 2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올해는 107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7월 셋째주 현재 지원금 입금현황은 약 85%이다. 이것은 무명으로 현금한 경우와 결연은 하지 않았으나 이 운동을 위해 특별헌금을 한 경우를 모두 합한 것이다.

미납인 경우 매달 지원금을 현금하는 일을 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추정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잊지 말자.

지원금은 매월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송금하고 있다. 미납, 체납된 지원금은 소급하여 현금하면 된다.

제10회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나는 무엇을?

때 /

9월 2일 ~ 11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곳 /

서울 강남 YMCA 대강당

참가문의 /

최종시 장로(한국교회갱신연구원 부원장)
김병현 목사(한국교회갱신연구원 지도)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침, 제본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한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 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 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 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 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지하	남자,여자성도 각 세 분

교우 동정

-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세계합창제에 자작곡 발표차 출국.
- * 이영수 · 전귀복 성도(5교구, 상도다락방)는 3일(토) 다녀.
- * 이번생 집사(대학부교사, 강남OCU회장)는 9일 기독교교회(OCU)회원들과 함께 수재를 당한 전방부대를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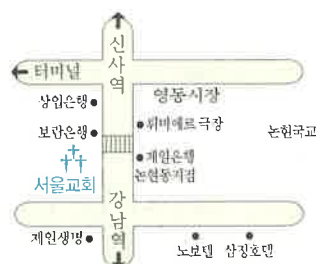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2. 농어촌 전도단을 위해
3.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4.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